



"듣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말씀이 기도가 될 때까지 암송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4장 또는 본문에 실려 있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와닿거나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으며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하루

"지혜가 자라는 교회, 키가 자라는 교회, 사랑스러워 가는 교회" 표어에 맞춰 하루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며 점검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할 일을 적어보고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어서 말씀 한 절을 암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어요.

자라나는 하루

자라! 주께서 일하신다

저녁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창세기 1:5

저녁은 야훼를 의지하는 때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 시편 3:5

저녁은 채워지는 때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전도서 3:1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먹으라! 주께서 힘을 주신다

먹어야 산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창세기 1:29

말씀을 먹으라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신명기 8:3

영적 양식을 찾으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요한복음 4:32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일하라! 주께서 기쁨을 주신다

일이 곧 삶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1:28

일은 행복을 가져다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 요한복음 5:17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11:30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쉬어라! 주께서 회복시키신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창세기 2:2

회복을 위하여 안식하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마가복음 2:27

새로움을 위하여 안식하라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 잠언 25:2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비워라! 주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영혼의 청결을 위해 비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 지라
| 누가복음 4:2

살기 위해 비우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 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 잠언 23:8

채우심을 위해 비우라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 시편 62:8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씻어라! 주께서 정결케 하신다

씻어 깨끗케 하라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요한복음 13:5

씻어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 에베소서 4:26-27

씻어 거룩하게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5:26-27



정재명 담임목사 설교 이변우 교육목사 설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5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사도행전 5장	6 창세기 6장 마태복음 6장 에스라 6장 사도행전 6장	7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사도행전 7장	8 창세기 8장 마태복음 8장 에스라 8장 사도행전 8장
12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	13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14 창세기 15장 마태복음 14장 느헤미야 4장 사도행전 14장	15 창세기 16장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
19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	20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사도행전 20장	21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	22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22장 느헤미야 12장 사도행전 22장
26 창세기 27장 마태복음 26장 에스더 3장 사도행전 26장	27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	28 창세기 29장 마태복음 28장 에스더 5장 사도행전 28장	29 창세기 30장 마가복음 1장 에스더 6장 로마서 1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메모
2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3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4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9 창세기 9-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10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0장 에스라 10장 사도행전 10장	11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	
16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17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 사도행전 17장	18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18장	
23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3장 느헤미야 13장 사도행전 23장	24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4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	25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5장 에스더 2장 사도행전 25장	
30 창세기 31장 마가복음 2장 에스더 7장 로마서 2장	31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		

창세기 1:1-13

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4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7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8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2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3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22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1장

3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1-10

1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2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4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5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6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7 그 때,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8 야훼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 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9 야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 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10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 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10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 2장

68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안의 지도자 몇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3:1-12

1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4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8 그 때,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9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

3 일꾼들이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제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야훼를 찬양했습니다. 11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야훼께 노래했습니다. "야훼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야훼를 찬양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4:1-12

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야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2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3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4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6 야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7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죽였습니다. 9 야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10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11 땅

이 그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 네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마태복음 4장

3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 4장

21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21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을 멈추게 하여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5:1-17

1 아담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3 아담은 백서른 살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4 아담은 셋을 낳고, 팔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아담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5 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6 셋은 백다섯 살이 되어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7 셋은 에노스를 낳고, 팔백칠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셋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8 셋은 모두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9 에노스는 아흔 살이 되어서 계난을 낳았습니다. 10 에노스는 계난을 낳고, 팔백십오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에노스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11 에노스는 모두 구백오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12 계난은 일흔 살에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13 계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팔백사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계난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14 계난은 모두 구백십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15 마할랄렐은 예순다섯 살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16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팔백삼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마할랄렐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17 마할랄렐은 모두 팔백구십오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에스라 5장

11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 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6:5-17

5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6 야훼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7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8 하지만 노아는 야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9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10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11 이 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12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 버리겠다. 14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

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으로 만들어라. 16 지붕 위에서 일 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삼 층을 만들어라. 17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썩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 갈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하늘에서는 썩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할 것이다.

에스라 6장

11 그러나 나 야훼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12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7:1-13

1 야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2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일곱 마리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3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일곱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 남게 하여라. 4 지금부터 칠 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 버리겠다." 5 노아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6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육백 살이었습니다. 7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8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9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두 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10 칠 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었습니다. 11 그 때, 노아는 육백 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십칠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땅 속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12 비는 땅 위에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13 바로 그

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8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에스라 7장

23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자손에게 노하실까 염려된다. 24 그대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성전 종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마라.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8:1-12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 땅 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3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 나갔습니다. 백오십 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 그 해의 일곱째 달 십칠 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5 물은 계속 흘러 빠져 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 사십 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타고 있던 배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7 그리고는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8 또다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9 하지만 비둘기는 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맞아들였습니다. 10 칠 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11 그 날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 칠 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

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8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9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에스라 8장

23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라나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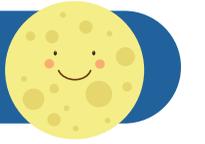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__ ~ __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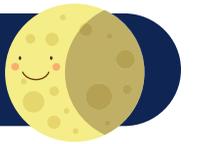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8장**
- 7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 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8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들어요! GOOD NIGHT!

창세기 9:1-12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2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4 다만 고기를 피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5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7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10 배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11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9장

22 예수님께서 뒤돌아 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에스라 9장

6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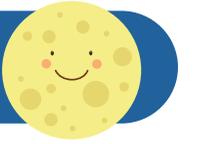
자라나는 하루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 ~ 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9장**
40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들어요! GOOD NIGHT!

창세기 11:1-9

1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2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 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살았습니다. 3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4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6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7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9 야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 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에스라 10장

1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에스라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12:1-9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습니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그 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세겜에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람은 그 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벧엘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람

은 그 곳에서도 야훼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9 그런 다음에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 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느헤미야 1장

11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 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13:1-15

1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3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벨엘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4 그 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야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6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7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9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 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 곳은 야훼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 때

는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11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13 그 때에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야훼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15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느헤미야 2장

18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14:8-16

8 그 때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싯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9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11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12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13 그 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에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삼백십팔 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15 그 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

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쿠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16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 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어떤 사람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느헤미야 3장

1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 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라나는 하루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__ ~ __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13장**
- 3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들어요! GOOD NIGHT!

창세기 15:1-11

1 이 일들이 있는 후에 야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2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야훼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쿠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3 아브람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4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6 아브람은 야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야훼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7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낸 야훼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8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야훼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9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

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서로 마주 보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11 술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느헤미야 4장

14 그런 뒤에 나는 돌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16:1-11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래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래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3 그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산 지 십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래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하자,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래를 깔보았습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야훼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7 야훼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솔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8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

로 가는 길이나?"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9 야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10 야훼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11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네 몸 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야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

28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때,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17:1-9

1 아브람이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2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3 아브람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5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6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7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네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네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9 내가 네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

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 6장

16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라나는 하루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__ ~ __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16장**
24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들어요! GOOD NIGHT!

창세기 18:26-33

26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사십오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사십오 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29 아브라함이 또 야훼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사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0 아브라함이 또 야훼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삼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삼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1 아브라함이 또 야훼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이십 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십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2 아브라함

이 또 야훼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열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열 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3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 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느헤미야 7장

2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라나는 하루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__ ~ __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17장**
- 11**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들어요! GOOD NIGHT!

창세기 19:12-22

12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의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신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13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야훼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야훼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14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야훼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15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16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야훼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7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 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요." 18 그러자 롯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9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20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1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 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22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동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 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8 에스라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팔 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0:1-7

1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옮겨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 갔습니다. 2 아브라함은 그 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3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4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6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7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 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느헤미야 9장

6 오직 주만이 우리의 야훼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1:1-13

1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피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2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4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팔 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5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 살이었습니다. 6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7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8 이삭이 자라나 젖을 떼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10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 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11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13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7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느헤미야 10장

28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종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외국인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과 깨달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29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야훼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2:1-13

1 이 일들이 있는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2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4 삼 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 곳이 보였습니다. 5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 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6 아브라함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7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8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9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

러 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여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10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11 그 때에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2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느헤미야 11장

2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3:1-11

1 사라는 백스물일곱 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2 사라는 가나안 땅 기랴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3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헛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4 "나는 이 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5 헛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6 "내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헛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8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 주시겠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9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10 그 때에 에브론은 헛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헛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11 "내 주여,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39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40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느헤미야 12장

43 그 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라나는 하루

오늘 할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oday schedule

5		memo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라나는 하루 체크리스트

- 자라** “하나님을 바라며 잘 잤나요?”(수면시간 _____:_____ ~ _____:_____)
- 먹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 일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나요?”

- 쉬어라**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중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 비워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했나요?”

- 씻어라** 하지 말아야 했을(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들기

- 사도행전 22장**
- 14** 그 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였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15**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4:1-12

1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뼈 아래에 놓어라. 3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신 야훼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서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4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5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6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7 야훼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 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9 그래

서 좋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10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열 마리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종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11 종은 성 밖의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12 종이 말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23장

23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십일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 13장

14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세기 25:19-28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20 이삭은 마흔 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21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야훼께 기도드리니, 야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2 그런데 리브가의 배 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며 야훼께 나아가 여쭙았습니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24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5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26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습니다. 27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8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스더 1장

1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백이십칠 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2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 왕이 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대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25:1-13

1 "하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에 빗낼 수 있다. 2 그 가운데 다섯 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4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7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 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9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10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간청했다.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6장

4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 2장

15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개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개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따기 그지없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26:1-13

1 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 때에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 그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공관에 모였습니다. 4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6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7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8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오? 9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10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창세기 27장

42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43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44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거라."

에스더 3장

2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27:1-10

1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2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3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삼십 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4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너의 문제다." 5 유다는 은화를 성전에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6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7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8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9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삼십 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값을 받았다. 10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창세기 28장

21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야훼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22 내가 기동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 "가서 수산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삼 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밥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28:1-10

1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2 그 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러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3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4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5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8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려고 달려갔습니다. 9 그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10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

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창세기 29장

21 칠 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에스더 5장

2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홀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가복음 1:1-13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5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6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7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 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1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

가 들렸습니다. 12 곧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창세기 30장

27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야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에스더 6장

9 그런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말에 태운 사람을 성 안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은 높여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 하며 외치게 하십시오."



묵상 노트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가복음 2:1-12

1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4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냈습니다. 이들은 뚫어 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5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6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8 예수님께서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9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

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12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 야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에스더 7장

3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가복음 3:1-12

1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3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4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5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 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6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8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9 예수님께서 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신 까닭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11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1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에스더 8장

15 모르드개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만든 자줏빛 겹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 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16 그 날은 유다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런 날이었습니다.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름

기도제목